금남로 메운 열기, 적폐청산으로 이어간다

퇴진운동본부 대선때까지 유지…25일·내달 15일 집회

새로운 사회 건설 주창…새마을회 장학금 대응도 모색

광주 촛불집회 성과와 과제

"박근혜 퇴진이라는 1차 과제는 실현됐지만 적폐 청산과 새로운 나라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구심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촛불 민심을 담아낼 형식과 촛불 민심을 이끌 주체를 조직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를 이끈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밝힌 광주 촛불집회의 성과와 평가다. 이들은 과제로 '촛불항쟁과 민심을 담아낼 새로운 조직의 건설'을 꼽았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농성장에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전망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항쟁 평가, 20차 시국촛불대회에 대한 준비, 새마을장학금 대응' 등 3가지 안건을 제시, 각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광주 촛불집회의 총평에서 "광주시민은 범국민 촛불항쟁에서도 민주화 성지 주권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옛 전남도청 분수대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기는 80년 5월을 능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횃불을 밝혀 범국민 촛불항쟁을 확산시켰고, '박근혜 감옥'으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켰다. 광주 촛불항쟁은 광주시민이 시작하고 광주시민이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시민사회·여성·종교·학계·법조계·정당·자치단체까지 서로의 특성에 맞게 촛불항쟁에 참여했다"며 "광주공동체가 보여준 헌신성과 협력은 광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진행될수록 사전 마당을 통한 표현의 공간 확대, 평등집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로의 노력, 다양한 부대행사로 촛불집회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촛불항쟁의 숨은 주역은 '5월 어머니'와 '상황실'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과 다음달 15일 2차례의 촛불집회를 주도하기로 했다.

새마을회장학금 특혜지원 문제는 새마을회가 장학금의 성격과 주체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박근혜 퇴진운동본부의 명칭과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며 "박근혜가 퇴진했을 뿐 구속과 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조직을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국토 사랑'의 다른 말 '나무 심기' 20일 광주시 광산구 어룡동 황룡강 둑길 1.2㎞구간에서 열린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과 공무원 500여명이 재래종 목련 300그루와 수수꽃다리(라일락) 900그루 등을 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35 해짐 18:45 달뜸 01:37 달짐 12:05

비 그친 뒤 쌀쌀

비가 그친 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온뒤 갬	6/12	보 성	비온뒤 갬	4/13
목 포	비온뒤 갬	5/10	순 천	비온뒤 갬	8/14
여 수	비온뒤 갬	7/15	영 광	비온뒤 갬	3/9
나 주	비온뒤 갬	4/11	진 도	비온뒤 갬	6/9
완 도	비온뒤 갬	7/12	전 주	비온뒤 갬	5/12
구 례	비온뒤 갬	5/13	군 산	비온뒤 갬	5/11
강 진	비온뒤 갬	5/12	남 원	비온뒤 갬	4/12
해 남	비온뒤 갬	4/11	흑산도	비온뒤 갬	5/9
장 성	비온뒤 갬	4/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먼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	북서~북	1.0~1.5
	먼바다(동)	북~북동	2.0~4.0	북서~북	2.0~3.0
	먼바다(서)	북~북동	2.0~4.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04	07:38
	13:07	19:44
여수	09:07	02:27
	20:55	14:46

◇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0/13	5/16	4/14	6/13	5/14	4/15	4/16

무등산 자락 수달 서식 추가 확인

생태계 건강성 입증

담양군 남면 무등산 자락에서도 수달 서식이 확인됐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동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무등산 생태를 상징하는 동물 깃대종이다.

무등산동부사무소가 추가로 확인한 수달 서식지는 담양군 남면 무동제 일원이다.

그동안 무등산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가장 많이 확인된 지역은 광주시 북구 제4수원지 일원이다.

나경태 무등산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수달 서식은 무등산의 수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지표"라며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퀴 운동화' 돌풍…'위험'을 타는 아이들

'힐리스' 초등생에 인기 폭발…광주총판 "없어 못팔아"

브레이크 장치 없어 사고 빈번…안전장비 착용도 전무

직장인 김모(30)씨는 지난 주말 집 근처의 한 마트를 찾았다가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달리던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부딪쳤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속도를 내던 아이가 눈앞에 서있는 사람을 보고도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바퀴 달린 운동화를 장난감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 반짝 유행하다 사라졌던 바퀴 달린 운동화 '힐리스'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신발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다가 원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빠르게 미끄러져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이 신발은 6~7살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주로 신고 있다.

광주 지역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 달에 200족 정도였던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는 세 배가 넘으면서 매달 600족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며 "수입된 제품이 모두 판매돼서 현재는 사고 싶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백화점, 마트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운동화 혀 안쪽에는 '힐리스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후 신기를 권한다'는 경고문이 써져 있지만 영어인데다, 지키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에선 시속 4~5㎞까지 달릴 수 있는데, 흔히 '주차장 바닥'이라고 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선 두 배 이상 속도를 내는 게 가능하다"며 "힐리스를 신고 달리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장비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구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힐리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 규제나 법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어른들이 안전하게 타도록 주의를 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내달 24일까지 들불상 후보자 공모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제12회 들불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대상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유 형식 추천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들불열사기념사업회(062-512-0527)로 문의하면 된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박기순·윤상원·박용준·박관현·신영일·김영철·박효선 씨 등 들불야학 출신 열사 7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분야별로 모범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5월27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열린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